

# 한중 새만금 협력단지 공동추진

### 양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협력·도시 간 협력 분야 논의 후 투자 개발 등 합의

새만금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기업과의 산업 협력 진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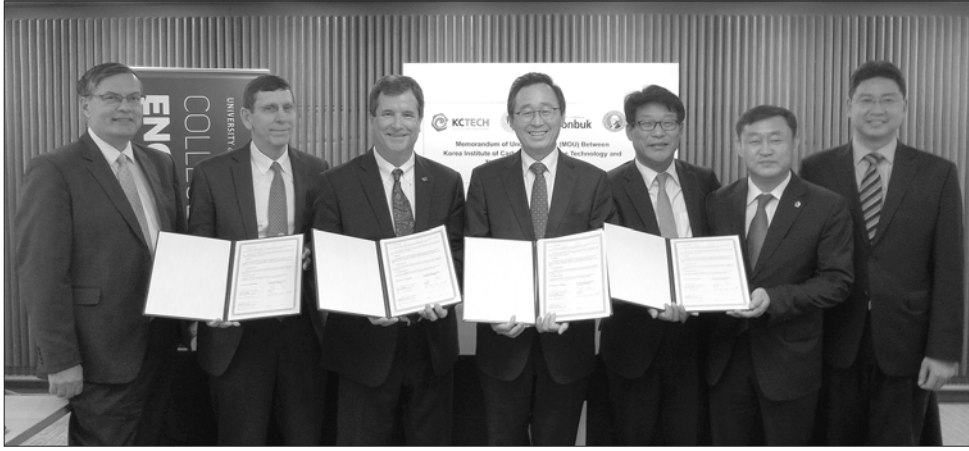
새만금개발청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등에 공동으로 단지 개발, 투자, 혁신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간 경제 분야 수석부처의 장관급 협의체로 양국 거시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 이후 매년 교차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통한 양국 경협 추진방안인 ‘산업협력’과 ‘도시 간 협력’ 분야가 논의돼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투자, 단지개발 등에 대한 공동 추진이 합의됐다.

이번 합의로 중국의 기업이 새만금으로 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우리와 선진 제조업·물류·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및 제3시장 공동개척 등을 제시하고 있어, 도는 향후 새만금에서 중국기업 투자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합의로 새만금개발청에서



미국 워싱턴대학교와 탄소산업 협약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7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대학교와 탄소 복합재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는 우선 한중·중한 산업협력단지 간 공동 투자유치와 교역·무역 규제개선 등 단기 내 협력 가능한 사항을 구체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정부와 협력 하에서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동개발 논의도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한중 경

제장관회의에서의 양국 공동 추진 합의를 계기로 새만금에서 한중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양국 공동 개발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중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이 양국의 교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한 산업협력단지 중 하나인 중국 연청시도 새만금청과 함께 발표를 진행해 새만금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공동 투자협력 및 단지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제안했

다. /정영수 기자

## 지자체, 입찰공고 전 규격 공개

입찰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물품·용역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토록 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실장은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 지자체 회계처리과정 보다 투명해진다

### ‘지방회계법’을 하반기 시행... 책임관 지정·결산검사 강화 등 내용 담아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올 하반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국회로부터 이송돼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와 회계미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회계법은 지자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지자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공

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그간 관서별로만 이뤄지던 회계 관리가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쳐게 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했다.

그동안 지자체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해 ‘침백 e-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사항이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과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출이러이 관리

때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다.

결산검사와 관련한 회계연도마다 지방회계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토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회계법 공포 후 빠른 시일 내 후속법령안을 마련, 관계전문가와 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열 행자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며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는 물론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 Buy전주 우수상품 GO! GO!

### 24개 업체 40개 상품 홍보·판매 행사 진행

전주시는 28일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이전주우수상품에 대한 홍보·판매 행사를 가졌다.

전주지역 대표 상품인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강화를 위한 ‘Buy전주 GO! GO! 페스티벌’은 생산업체,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시 자원봉사자 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주시장이 인정한 지역 우수상품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 바이전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비스의 집구류 등 생활용품, 전주대궁중약고추장 등 식품류, (주)오릭스의 이온화식 수처리기 등 공산품 등 24개 전체 바이전주우수업체가 참가, 각 업체별 부스에서 총 40개 우수상품에 대한 전시·홍보가 진행됐다. 또, 체험, 시식, 판매코너도 설치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체험 및 시식과 함께하며 공장 생산도 가격으로 바이전주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나비스의 극세사 이불, 성실섬유 한지양말, 전주이강주, 북전주농업협동조합의 쌀, 할보리, 토마토, 맛디자인의 감치, 함씨네토종공식품, 두메산골의 조해랑 오리훈제 등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또한 예비 바이전주업체 3개 업

체(다오코리아, 휴데코, 인텍)와 사회적기업 5개 업체 상품도 전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바이전주우수상품을 재료를 사용한 먹거리 시식 코너를 운영하고, 스트레스 해소 베키 싸움, 경품이 있는 닥트 게임 등 체험행사와 즉석 노래자랑, 어른들이 들려주는 동요 부르기 등 흥겨운 문화마당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바이전주의 우수성과 함께 전주의 맛과 멋을 펼쳐보였다.

특히 참여기업들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솔선수범,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등 전주시 공익사업에 전액 후원했다.

소대성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지속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 자원봉사 단체 등 전주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기업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 하반기에도 지역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개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신장으로 견인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도교육청, 고정식 명찰 자제 권고

### 교복 동하복 착용 시기 명시보다 학생 자율 보장도

‘전북도교육청이 교복에 박음질로 부착된 고정식 명찰 자제를 권고했다.

학교 밖에서 자신 이름 공개를 꺼리는 학생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가 날씨에 따라 동하복 교복 착용 시기를 현실적인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훈육기간 연장 등 학생들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생활규정을 전부 조사한 결과, 동하복 등 교복 착용 시기를 명시한 학교는 중학교가 30%(63개교), 고등학교가 37%(4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교복에 박음질로 부착된 고정식 명찰 자제를 권고했다.

학교 밖에서 자신 이름 공개를 꺼리는 학생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가 날씨에 따라 동하복 교복 착용 시기를 현실적인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훈육기간 연장 등 학생들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생활규정을 전부 조사한 결과, 동하복 등 교복 착용 시기를 명시한 학교는 중학교가 30%(63개교), 고등학교가 37%(4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형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